

##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제조업 변화와 혁신안

- ◆ 미국 내 제조업 쇠락과 서비스 분야 위주의 성장 지적
- ◆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와 소비 형태 변화 관측
- ◆ 전미제조자협회(NAM), 이에 따른 제조업 혁신안 제시

### I. 조사 배경

#### □ 제조업이 미국 경제·노동에 미치는 영향

- '21년 기준, 수치로 분석한 美 제조업 동향
- 제조업은 미국 총생산량 중 2조3,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1,20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이는 전체 생산량 중 11%에 해당하며, 미국인의 8%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수치

<'21년 기준 美 제조업 동향>



[자료 : 맥킨지]

- 특히, 국가 자본 투자의 20%, 생산성 성장의 35%, 특허 출원에 55%, 전체 수출에 60%, 사업 연구 개발에 70% 차지
- 바이든 정부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법, 반도체법 등을 입법하며 제조기업에 관한 혜택 증대
- 또한,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붕괴와 인력난으로 제조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II. 미국 제조업 하락에 대한 문제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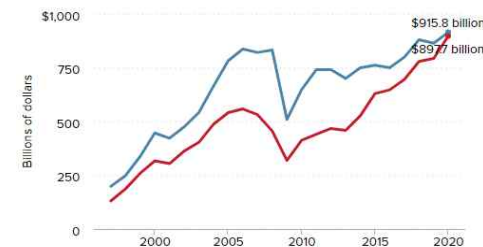
#### □ 컨설팅社 맥킨지, 미국 제조업 문제점 분석

- 미국의 제조업 생산시장 점유율 지속 하락
- 미국의 제조업시장은 물리적 생산보다 디자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활동에 집중되었으며, 1997년 이후 제조회사·공장 수는 약 25% 감소
-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 생산시장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기준, 4.9%(1990)에서 1.4%(2002)로 하락

#### □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제조업의 중요성 대두

- 제조업과 고용주, 미국의 주요 경제 성장 엔진으로 평가
- 제조업은 타 산업과 달리 고학력 근로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초·중급 일자리를 최대 150만 개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 노동시장 조정과 중산층 강화에 기여
- 무역적자와 공급망 붕괴 회복이 최우선과제
- 2010년~2019년 사이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883억 달러를 기록

<1997년 - 2020년 미국 전체 대비 제조업 무역적자>



[자료 : 경제정책연구소]

-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미국기업 경영진의 90% 이상이 공급망 탄력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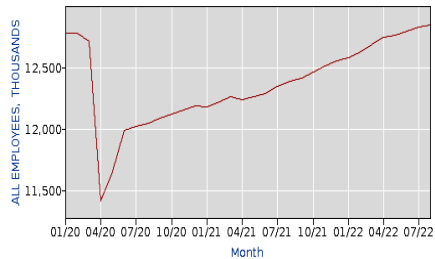
- 미국 정부는 제조업 강화를 위한 연방 자금 투입
  -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이니셔티브 등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생성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Ⅲ. 미국 내 제조업 근황과 소비 형태 변화 관측

#### □ 뉴욕타임즈,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와 소비 형태 변화 보도 (9.26)

-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숫자 주목
  - '20년 2월부터 4월까지 136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소멸 이후, '22년 8월 143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총 6만7천 개의 신규 일자리 생성
  - 제조업 일자리동향 변화의 이유로 (1)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 (2) 미국 소비자의 소비 형태\* 변화 지목
- \*코로나19 이전 미국 소비 형태는 서비스 구매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자동차, 가구 구매 등 상품 구매로 변화

<2020년 ~ 2022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숫자>



[자료 : 노동 통계국]

-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비관론에도 기업들은 긍정적인 태도 유지
  -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접화된 중국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2021년 시행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미국기업의 위탁 생산과 배송 타격
  - 바이 아메리카법, 반도체법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으로 미국기업은 중국 투자, 사업 운영 등에 회의적인 태도로 선회

- 미·중비즈니스협회(USCBC)의 미국 11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는 중국 내 비즈니스 낙관론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조사 대상의 8%만이 1년 사이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했다고 기록

### Ⅳ. 변화에 따른 혁신안 제시

#### □ 미국 제조업 증흥을 위한 개혁안

- 전미제조자협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를 겪는 제조업에 새로운 로드맵 제시
  - 'Compete to Win'이라는 새로운 개혁안을 통해 세계개혁, 무역과 기술에 대한 규제 및 법률 개혁 등을 제안

<'Compete to Win' 개혁안>

분야	주요 내용
세계개혁	사업 소득 20% 특별 공제 방안 확대, 사업 이자 공제 유지, 친기업 법인세 도입
무역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유치와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정책 강화, 제조업 일자리 육성 지원
친환경	환경 규제 개혁, 신중한 감독과 과대한 규제 제거, 친환경 관련 정부·기업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 개설
에너지	국내 천연자원과 광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규제 장벽 철폐,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현대화
인프라와 교통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유지와 현대화, 도로, 활주로, 항만, 철도 등 사용료 개혁
교육	숙련된 노동자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관련 자금 지원, 견습 및 학습 프로그램 강화, 리더십 훈련 지원
노동/취업	원활한 노동력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 개혁, 연방 차원의 노동자 차별방지 보호 방안 강구
이민	해외 인력 수급을 위한 이민법 개선, 노동력 향상을 위해 이과 교육 지원과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개선

(출처 : <https://www.nam.org/competing-to-win/>)

[자료 : 전미제조자협회]

- 반도체법 등 각종 법안으로 정부 주도의 미국 내 첨단 제조업 투자 중요성 강조와 유연한 세제 적용으로 기업 간의 연구 개발 투자 확대 요구
- 무역 협정 시 강화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협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공과 혁신적 우위 선점
- 공공·민간의 협동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한 실시간 위협 감지 능력 향상과 사이버 공격 노출시 합리적인 보고 메커니즘 구성
- 이외에도 복지개선, 기업지배구조 개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제조업 개혁을 통해 미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 주장

## V. 시사점

### □ 연방 차원의 자본 투입으로 미국 제조업 성장 기대

- 신규 법안과 국제 문제 심화로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인프라법,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 지급으로, 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로 확대와 미국 제조업의 도약 기대
  - 미·중 갈등 심화로 원자재 수급, 중국 거래처 변경, 중국 내 제조업 관련 시설의 이전 가능성에 따라 미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효과 전망
  - 또한 제조업의 생산시설 이전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과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연방 차원의 대규모 투자 권고

### □ 세계적 변화에 따른 美 제조업 변화 요구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붕괴로 미국 내 제조업 변화 조언
  -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보조금 혜택을 통해 화석연료에 의지하던 에너지 집약적인 중공업을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전환,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 확대 및 친환경 제품 관련 생산시설 확보 강조
  -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접목으로 신기술 관련 제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4차산업(Industry 4.0)의 실현 예상
  - 특히 반도체, 5G 기술 제조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제조업 혁신 강조

- 맥킨지는 첨단 기술의 수요 증가로 2016년 대비 미국 내 물리적 노동 참여 비율이 2030년까지 27% 하락할 전망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제조업 기업은 외부 고용을 통해 전문 기술 인력을 보충하거나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수요를 보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노동자 재교육 과정과 숙련도 성장을 위한 지원 권고
- 특히, 첨단 기술 수요 증가로 임금 상승과 국내 노동자의 질적 향상 기대
- 또한 미국 제조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거대한 세계적 제조 시장보다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화된 공급 네트워크 선호

### □ 미 경제 둔화에도 제조업을 필두로 노동시장 강세 유지

-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둔화에도 노동시장 강세 유지 전망
  - WSJ(9.29)은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 노동시장의 강세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이 온전한 인력 보충을 이루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
  - 한 경제학자는 금리 인상과 각종 지표의 경제 하락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 노동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미 정부는 적극적인 제조업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기존 정책 개혁 등을 통해 현재 노동력 수요 과잉을 해결하고 인프라법, 반도체법 등 첨단 제조업 육성 법안으로 미국 제조업 시장의 경쟁력 향상 예고

[자료원] 美 경제정책연구소, 노동 통계국, 뉴욕타임즈, 맥킨지, 월스트리트 저널, 전미제조자협회,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 끝